

Preface

자원경제 · 정책분야 특별호 발간에 대해서

Special Issue on Energy Economics and Policy

2000년대 초반에 시장에서 100달러를 넘는 유가가 나타났을 때에는 두 번 다시 50달러 이하의 유가는 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이 안 된 2012년부터 셰일 오일의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2014년부터 유가는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COVID-19 확산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OPEC+의 협조 감산이 결렬되고 일부 산유국의 증산 발표가 이어지면서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결국에 올해 4월에 WTI의 종가는 -37.63USD/bbl로 최저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원유 거래가 시작된 이래 마이너스 유가가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는 마이너스 가격을 경험한 최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가격”이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지만, 수요, 공급, 가격은 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요인들 중의 하나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본 호에서는 광물을 포함한 1차 에너지에서부터 전환에너지까지의 에너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원경제·정책분야의 논문들로 특별호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의 앞으로의 자원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자원개발기본계획(2020~2029)에 대한 총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개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반영되어 나타난 전략과 그 이행 동향을 살핀 기술보고도 담았습니다. 연구논문으로는 가격, 시장, 해외자원개발, 국제수지, 거시경제, 동조화와 탈동조화, 에너지간 대체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게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 주요 비철금속의 국제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논문, 최근의 전기차 보급 등에서 나타나는 수송부문에서의 전력화에 따른 전력부문의 영향을 분석한 논문, 전원구성을 고려하여 국제에너지시장의 에너지가격이 우리나라 전력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 국제원유시장에서 3대 국제유가들의 상승 및 하락 시의 동조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입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에너지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국제분업으로 연결되어 글로벌 공급망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COVID-19의 의료물품 조달에서도 나타났듯이 위기 시에 필수재를 자국 용으로 한정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경제활동이 위축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활성화되려면 에너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에너지가 영향을 주는 분야들을 다룬 논문들로 구성된 본 특별호가 에너지시장과 에너지산업의 미래상을 예상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윤경 (Kim, Yoon Kyung)

특별호 객원편집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pecial Issue Guest Editor-in-Chief,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